

# 2014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 국어 영역 •

### 국어 B형 정답

|    |   |    |   |    |   |    |   |    |   |
|----|---|----|---|----|---|----|---|----|---|
| 1  | ③ | 2  | ③ | 3  | ② | 4  | ③ | 5  | ③ |
| 6  | ③ | 7  | ④ | 8  | ① | 9  | ① | 10 | ⑤ |
| 11 | ③ | 12 | ② | 13 | ② | 14 | ① | 15 | ④ |
| 16 | ① | 17 | ② | 18 | ② | 19 | ⑤ | 20 | ② |
| 21 | ⑤ | 22 | ⑤ | 23 | ① | 24 | ⑤ | 25 | ⑤ |
| 26 | ④ | 27 | ④ | 28 | ② | 29 | ⑤ | 30 | ④ |
| 31 | ① | 32 | ③ | 33 | ② | 34 | ③ | 35 | ④ |
| 36 | ④ | 37 | ③ | 38 | ⑤ | 39 | ① | 40 | ① |
| 41 | ④ | 42 | ④ | 43 | ③ | 44 | ③ | 45 | ② |

### 해설

#### 1. [출제의도] 토의 참여자의 역할을 이해한다.

김 교수는 토의 과정에서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실제 사례를 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풀이] ① 사회자는 토의 주제를 제시하고, 인터넷 댓글 문화에 대한 진단과 개선 방안이라는 논제를 차례로 제시하며 토의의 방향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② 사회자는 ‘구조적 측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이 소장’에게 요구하였다. ④ 박 대표는 댓글 이용자에 대한 통계 자료를 인용하여 인터넷 댓글의 여론 형성 기능에 대해 김 교수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⑤ 이 소장은 규제가 악성 댓글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김 교수의 견해에 일부 동의하고 있다.

#### 2. [출제의도] 토의의 내용을 정확하고 비판적으로 파악한다.

김 교수는 정부 규제보다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통한 규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청중은 토의의 주제와 관련하여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통한 규제가 갖는 장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증을 가질 수 있다.

#### 3. [출제의도] 토의의 내용을 바탕으로 인터넷 댓글 문화에 대해 평가한다.

박 대표는 이용자 중 극소수가 전체 댓글의 30% 이상을 작성하며 기사를 읽은 2.5%만 댓글을 작성하므로, 댓글을 전체 여론의 향배를 가늠하는 잣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에 있다.

[오답풀이] ① 김 교수는 누구나 제한 없이 사회적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점을 들어 댓글이 인터넷 매체를 중심으로 여론 기능을 재편하는 데 가장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③ 김 교수는 인신공격, 비방, 욕설 등의 악성 댓글이 진지한 논의를 방해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④ 이 소장은 이용자들의 심리적 위축과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 가치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적극적 규제에 대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⑤ 박 대표는 악성 댓글 양산에 대한 구조적 측면의 개선 방안으로 추천과 비추천 기능을 강화해 이용자 간 상호 견제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4. [출제의도] 발표 계획이 실제 발표에서 반영된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A형 4번 해설 참고.

#### 5. [출제의도] 청중들 반응의 적절성을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A형 5번 해설 참고.

#### 6. [출제의도] ‘건의문’의 글쓰기 전략이 잘 반영되었는지 평가한다.

글쓰기 전략에는 문제 해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효과를 제시하여 설득의 효과를 높인다고 하였으나, 실제 글에는 ‘보행자 안내 표지판’ 설치가 가져올 다양한 측면의 기대 효과는 나타나 있지 않다.

#### 7. [출제의도] 자료를 해석하여 적절히 활용하는지 평가한다.

(나) - 2. (다)의 자료는 근로자들이 가족친화제도를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와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를 통해 가족친화제도의 활용 정도가 낮은 이유가 근로자들의 제도 인지 정도와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없다.

#### 8. [출제의도] 글쓰기의 조건에 맞게 표현하는지 평가한다.

‘Ⅱ - 3 - 가’는 ‘정책 차원의 문제 해결 방안’에 해당한다. 제도 도입에 따른 세제 혜택 제공은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해당되고, 비용 부담이 도입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내용은 이러한 해결 방안이 필요한 근거에 해당한다.

#### 9. [출제의도] 글감을 찾아 내용을 조직하고 전개한다.

A형 9번 해설 참고.

#### 10. [출제의도] 작성한 초고를 고쳐 쓴다.

A형 10번 해설 참고.

#### 11. [출제의도]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이해한다.

‘혼삿길’은 ‘혼사’와 ‘길’의 합성어로 ‘젓가락’처럼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붙인 것이다. ‘섣달’은 ‘섧’과 ‘달’이 결합되면서 끝소리 ‘ㄹ’이 ‘ㄷ’ 소리로 나기 때문에 한글맞춤법에 따라 ‘섧달’ 대신 ‘섣달’로 쓴다.

#### 12. [출제의도] 문장을 어법에 맞게 고쳐 쓴다.

‘의논하다’는 주어, 목적어,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그런데 ‘나는 어제 친구와 의논했다.’라는 문장에는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문장을 ‘나는 어제 친구와 그 일을 의논했다.’로 고쳐 쓴 이유는 문장의 필수 성분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① ‘예상’에 ‘미리’의 의미가 들어 있어 의미가 중복된다. ③ ‘나는 눈이 시리도록 파란 하늘을 보았다.’에서 ‘눈이 시리도록’은 ‘파란’과 ‘보았다’를 모두 수식할 수 있어 문장의 의미가 중의적으로 해석된다. ④ ‘임혀지다’는 ‘임다’에 피동 접미사 ‘-히-’가 결합된 ‘임히다’에 ‘-어지다’가 다시 결합된 이중피동어이다.

#### 13. [출제의도] 표준 발음법 규정을 이해했는지를 평가한다.

‘금용’은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음을 첨가하여 [니, 나, 너, 노, 누]로 발음한다’는 표준 발음법 제 29항의 원칙에 따라 [금녕]으로 발음한다. 다만, ‘금용’의 경우는 표기대로 발음되는 것이 허용되므로 [그녕]으로도 발음할 수 있다.

[오답해설] ① ‘항로’는 표준 발음법 제19항의 적용을 받아 [항노]로 발음된다. ③, ④ ‘광한루’와 ‘칼날’은 표준 발음법 제20항의 적용을 받아 [광할루], [칼랄]과 같이 발음된다. ⑤ ‘밤물’은 표준 발음법 제18항의 적용을 받아 [밤물]과 같이 발음된다.

#### 14. [출제의도] 다의어의 의미를 파악하고 구분한다.

A형 14번 해설 참고.

#### 15. [출제의도] 응집성을 드러내는 표현 장치를 이해했는지를 평가한다.

A형 15번 해설 참고.

#### 16. [출제의도] 15세기 국어에서 모음조화 현상을 이해

한다.

현대국어에서는 체언과 목적격 조사가 결합할 때 체언의 끝소리의 받침 유무에 따라 ‘을/를’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15세기 국어에서는 체언의 끝소리가 양성모음인지 음성모음인지도 고려하였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각 단어에 어울리는 목적격 조사를 찾는 것이다. ‘사름’의 ‘름’은 받침이 있고 양성모음이기 때문에 ‘을’이 오며, ‘천하’의 ‘하’는 받침이 없고 양성모음이기 때문에 ‘를’이 오며, ‘누’는 받침이 없고 음성모음이기 때문에 ‘를’이 오며, ‘뽕’은 받침이 있고 음성모음이기 때문에 ‘을’이 온다.

#### [17 ~ 19] (인문) 신상규 외, 『인간과 포스트휴머니즘』

이 글은 현대 과학 기술의 발달로 등장한 ‘포스트휴먼’이 ‘인간’의 존재 의미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다. 근대 사회부터 이어져 온 ‘합리적 이성’이라는 인간의 배타적 속성이 포스트휴먼의 등장으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설명하고, 인간과 비인간의 구분 자체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으로 인간을 되돌아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17. [출제의도] 글의 내용 전개 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ㄱ. 글 전체에 걸쳐 인간과 인간 아닌 것을 구분하는 관점에 대해 비판적 입장에서 검토하고, 관점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ㄴ. 3문단 이후로 포스트휴먼이 등장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멀지 않은 미래에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에 대해 예측하고 있다.

#### 18.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의 견해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1문단에서 필자는 인간과 비인간을 구분 지을 수 있는 속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 후, 5문단에서 포스트휴먼의 등장으로 인간과 비인간을 구분하려는 시도 자체에 대한 성찰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필자의 주장은 인간과 비인간을 구분하려는 시도 자체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19. [출제의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보기>를 보면, 사이보그는 늙지 않고 병도 들지 않으며 인간보다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그것은 물론 사이보그가 인체의 한계를 극복한 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이 근대 사회에 제시된 고유의 인간성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답풀이] ①, ② 3문단에서 포스트휴먼의 개념과 양상을 제시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4문단에서는 인간이 기계 환경에 맞추어 살아가는 의존적인 모습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④ 4문단에서 기계가 더 이상 인간의 도구에 머물러 있지 않는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기계가 인간의 의식에 관여하거나 더 나아가 삶의 방식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보기>에서 사이보그가 아이들에게 교육을 통해 인류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주었다는 것은 인간의 의식에 사이보그가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20 ~ 23] (사회) 김병용, 『관광소비자행동론』

#### 20. [출제의도] 글의 내용 전개 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A형 19번 해설 참고.

#### 21. [출제의도] 핵심 개념을 파악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A형 20번 해설 참고.

#### 22. [출제의도] 글의 주요 개념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

-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A형 21번 해설 참고.
23. [출제의도] 고유어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고 한자어로 바꾸어 쓸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A형 22번 해설 참고.
- [24~26] (예술) 조은정, 『아나모르포시스』
- 이 글은 아나모르포시스(왜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왜상은 사물의 형상을 극도로 왜곡하여 표현한 것이어서 이러한 왜상을 보기 위해서 감상자는 자신의 위치를 옮기는 등의 행위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감상자는 그림의 감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존재가 된다.
24. [출제의도] 글의 서술 방식을 파악한다.  
아나모르포시스라는 개념에 대한 서양 미술사에서의 논쟁은 뒷글에 드러나 있지 않다.
25. [출제의도] 글의 정보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  
그림 중앙의 물건들은 왜상이 아니므로 정면에서 보면 바른 형상으로 보이며, ‘지식과 부’를 상징한다. 감상자가 이동한다고 해서 얻게 되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오답풀이] ① 층계에서 보면 왜상이 바르게 보인다고 하였으므로 사각왜상에 해당한다. ② 3문단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다. ③ 마지막 문단에서 왜상을 감상하는 과정에서 감상자는 그림 감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고 하였다. ④ <보기>의 마지막에 나타난 해골의 상징적 의미를 알게 되었다는 것은 3문단의 설명에 따르면 화가의 생각을 파악해 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6. [출제의도] 글의 핵심 정보를 파악한다.  
르네상스 시기에는 감상자의 시선을 정면에 상정하여 사물을 표현한다고 하였고, 왜상도 특정한 지점에서 보았을 때 바르게 보이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일정한 위치에서 보아야 화가가 의도한 형상을 잘 볼 수 있다는 점이 동일하다.
- [27~28] (과학) 캠벨, 『생물학』
- 이 글은 생존을 위해 체액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동물들의 삼투 조절에 대해, 동물이 서식하는 환경에 따라 어떠한 차이점이 있으며 수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첫 문단으로부터 삼투 조절의 필요성과 개념, 삼투 현상의 개념,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에 따른 구분 기준과 순응형 동물, (삼투 조절형) 해수 동물, 담수 동물, 육상 동물 등의 순서로 글의 내용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27. [출제의도] 내용을 추론하여 이해한다.  
담수 동물은 육상 동물과 같이 몸밖으로 수분을 내보내고 있지만, 육상 동물의 경우에는 수분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은 공통점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 1문단의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3문단에서 알 수 있다. ③ 3문단의 정보를 통해 알 수 있다. ⑤ 6문단의 정보를 통해 알 수 있다.
28. [출제의도] 파악된 정보를 통해 사례를 이해한다.  
넙치와 관련된 <보기>의 사례를 뒷글의 정보를 바탕으로 이해하면, 넙치는 해수 동물이며 삼투 조절형 동물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넙치가 지니고 있는 아가미, 창자, 염분 분비 세포 등에서도 본문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이때 넙치의 아가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은 2문단과 4문단의 정보를 활용하여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③, ④, ⑤ 모두 글의 4문단의 정보를 중심으로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다.

[29~30] (독서) 양웅수, 「위학대요」 / 홍석주, 「학강산필」

(가) 이 글에서는 책을 읽을 때의 마음가짐과 독서 태도, 그리고 독서를 바탕으로 한 행동 등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나) 이 글에서는 하나의 사례를 들어, 책을 읽어 뜻을 풀이할 때에는 시대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

29. [출제의도] 선인들의 독서 태도를 파악한다.

(나)에서는 성인의 말씀은 바르고 공평해서 폐단이 없다고 했을 뿐, 여러 선유들의 견해를 비교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러나 있지 않다.

30. [출제의도] 글의 핵심 내용을 파악한다.

(나)의 글쓴이가 강조하고 있는 독서 수행 과정은 그 시대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것과 관련된다. 이것은 곧 글의 배경이 되는 사회 문화적 상황을 고려하는 것에 해당한다.

[31~33] (현대시) 김소월,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더면」 / 고재중, 「면면(綿綿)함에 대하여」

(가) 김소월,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대일 땅이 있었더면’

‘집’과 ‘땅’을 잃고 유랑하고 있는 화자가 ‘동무들’과 함께 가꿀 삶의 터전에 대한 회복을 소망하며 부정적 현실에 대처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나) 고재중, ‘면면(綿綿)함에 대하여’

시련을 견디며 생명력을 이어가는 ‘나무’와 같이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며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이 인생임을 ‘면면함’의 의미로 표현하고 있다.

31. [출제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을 파악한다.

(가)는 ‘나는 동무들과 내가 ~ 꿈을 꾸었노라’에서, (나)는 ‘너 ~ 소리 들어 보았나’에서 각각 목적어와 서술어를 도치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적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

32. [출제의도] 시구의 의미를 파악한다.

‘떠돌으랴’는 유랑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화자의 탄식을 드러내는 시구이다.

[오답풀이] ① ‘꿈’에는 동무들과 함께 삶의 터전을 가꾸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이 투영되어 있다. ② ‘집’의 상실과 ‘땅’의 부재는 삶의 터전을 잃은 화자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집 잃은’을 통해 화자가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④ ‘떠돌으랴’와 함께 유랑의 삶을 사는 화자의 현재 상황이 드러난다. ⑤ 부정적 현실에 절망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난다.

33.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통해 작품을 감상한다.

[C]의 ‘다 청산하고 떠나버리는 마을’은 공동체가 해체되어 가는 농촌의 모습이다. ‘나무’의 아픔은 곧 ‘마을(사람들)’의 아픔이다. ‘나무’의 호느낌에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의 정서가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묵묵히 ‘마을’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다. ‘가지 팽팽히 후리던 소리’를 통해 혹독한 시련을 견디며 마을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읽어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B]의 ‘상처투성이’의 ‘겨울’ 나무와 [D]의 겨울을 이겨낸 ‘초록의 광휘를 내뿜는’ 나무가 대조적 상황을 보여준다. ③ [D],[E]에는 시련을 이겨낸 ‘나무’의 의연함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엿보인다. ④ [E]에서는 ‘나무’의 ‘생명력’이 농촌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고 있음을 청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다.

[34~36] (현대소설)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이 작품은 뚜렷한 사건 전개 없이 소설가 구보가 정

오에 집을 나와 경성(서울) 시내를 이리저리 배회하다 새벽 두 시에 집으로 들어가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구보가 이동하는 장소와 만나는 사람, 관찰하는 사람들의 의해 촉발되는 상념과 회상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 과정에서 구보가 그려 낸 것은 식민지 근대의 축도인 경성의 우울한 풍경이라고 할 수 있다.

34. [출제의도] 소설의 서술상의 특징을 이해한다.

구보는 옛 동무를 만난 다음 남대문 밖으로 나와 경성역을 향해 간다. 역 안에서도 삼등 대합실, 매점 옆을 지나고 다시 그곳을 떠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보가 느끼는 생각과 감정이 드러나고 있다.

35. [출제의도] 장면의 특징을 이해한다.

[A]~[C]에는 구보가 옛 동무를 만나는 장면이 제시되어 있다. [A]에서 옛 동무는 영락한 행색으로 인해 구보가 자기를 알아 볼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구보는 그에게 반가운 인사를 건넨다. 따라서 두 인물이 반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풀이] ① [A]에서 두 사람이 마주 걸어오고 있으므로 물리적 거리는 가까워진다. 그러다 [C]에서 옛 동무가 저 갈 길을 가버림으로써 거리가 멀어진다. ② [A]에서 기대와 망설임을 보이나 [C]에서 울 것 같은 감정을 느낀다. 따라서 심리적 거리감은 심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A]에는 기대와 망설임과 용기 등이 복합되어 있으며 [C]에는 서운한 감정과 다시 말을 걸고 싶은 마음이 복합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⑤ [B]에서 구보와 옛 동무는 말을 주고받고 있지만 진정한 소통에는 이르지 못함으로써 구보에게 슬픈 감정을 유발하게 된다.

36. [출제의도] 작품의 주제의식을 이해한다.

‘캡 쓰고 쓰메에리 양복 입은 사내’의 ‘온갖 사람들에게 의혹을 갖는’ 눈에서 구보는 우울을 느끼며 그곳을 떠난다. 따라서 이 인물의 눈에 우울과 회의가 담긴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답풀이] ① ‘바세도씨병’ 노동자는 병든 육체의 일면을, 이 사람을 경계하며 소외시키는 젊은 아낙네의 태도는 정신적 불건강성을 보여주고 있다. ‘대학노트’는 관찰자이자 기록하는 자로서의 소설가 구보의 역할을 보여준다. ② 구보는 삼등 대합실에서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고 있다. 또한 익명적 인간관계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③ 드난살이에 삶의 즐거움을 잃고 경직되어 있는 노파의 얼굴에서 생기 없는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⑤ 구보는 사람들에게서 병증을 발견하고 있으며, 그러한 자신 역시 병자라고 하고 있다. 이는 식민지 근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우울한 내면에 대한 은유로 읽을 수 있다.

[37~40] (고전소설) 박지원, 「양반전」

이 소설은 연암 박지원이 양반 사회의 모순을 폭로하기 위해 쓴 풍자 소설이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무능한 정선 양반은 관곡을 빌려 먹고 갚지 않아 투옥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부자가 관곡을 갚아주고 양반 신분을 샀으나 군수가 나서서 증서 작성을 제안한다. 두 번의 증서를 작성한 끝에 부자가 스스로 양반 신분을 포기하게 된다.

37.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이 소설은 등장인물들의 대화와 행동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사건이 전개된다.

38.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다.

이 소설에서 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 증서에 격식을 갖추 서명을 하게 한 사람은 군수이다. ‘비록 그렇지만 ~ 도장을 찍으리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39. [출제의도] 등장인물의 심리를 한자성어로 표현한다.  
함분축원(含憤蓄怨)이란 ‘분한 마음을 품고 원한을

쌓음.’이란 뜻으로, ㉠에서 부자는 양반들에게 오랜 세월 동안 천대와 멸시를 받으면서 모욕감을 느꼈으므로 이를 표현하기에 적합하다.

40. [출제의도] 다양한 관점으로 작품을 해석해 본다.  
이 소설은 풍자의 주체와 대상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다. 정선 양반에 대해 ‘㉠무능하고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은, 그가 관곡을 빌어먹고 갚지 못할 뿐 아니라, 관찰사가 투옥을 명하였는데도 갚을 아무런 수단을 취하지 못하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횡포를 부리는 양반의 모습’은 정선 양반의 모습이 아니라 두 번째 증서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타락한 양반의 모습일 뿐이다.

[41 ~ 43] (고전시가) 작자 미상, 「유산가」/ 윤선도, 「만홍」

41. [출제의도] 주어진 두 시가 작품의 특징을 파악한다.  
A형 41번 해설 참고.

42.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상 특징을 파악한다.  
A형 42번 해설 참고.

43. [출제의도] 시구의 의미를 파악한다.  
A형 43번 해설 참고.

[44 ~ 45] (회곡) 차범석, 「성난 기계」

44. [출제의도] 인물의 심리와 태도를 파악한다.  
A형 44번 해설 참고.

45. [출제의도]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세부 내용을 파악한다.  
A형 45번 해설 참고.